

미국(선진국)

테크 / 플랫폼

▶ 알파벳(GOGL.US): 2분기 실적 리뷰, 유튜브 매출 급증

-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쇼핑 비중이 늘어나 디지털 광고 사업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성장
- 유튜브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리테일 서비스라고 소개하며 미국에서 매달 TV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이 1.2억 명 이상이며 이는 작년의 1억 명에서 증가한 수치
- 구글 클라우드에는 인프라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Google 문서 및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공동작업 도구, 기업 고객을 위한 기타 서비스'가 포함
- 유튜브 Shorts의 일일 조회수가 150억 뷰 돌파, 이는 3월의 일일 조회수 65억 뷰에서 증가한 수치
- [분기 실적] 618.8억 달러 (vs 시장컨센 561.6억 달러 상회) / EPS 27.3달러 (vs 시장컨센 19.34달러 상회) / 전체 구글 광고 매출 504.4억 달러 +69% YoY
- [상세 실적] 유튜브 광고 매출 70억 달러 +83% YoY (vs 시장컨센 63.7억 달러 상회) / 구글 클라우드 매출 46.3억 달러 +54% YoY (vs 시장컨센 44.0억 달러 상회) / Traffic 인수 비용 100.9억 달러 (vs 시장컨센 90.7억 달러 상회)

▶ 애플(AAPL.US): 3분기 실적 리뷰, 공급 문제에도 매출 및 이익 컨센 상회

- 중국 지역 아이폰 뿐만 아니라 Mac을 포함한 약세서의 판매 증가가 매출 견인
- Mac 및 iPad 판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과 공급 부족이 매출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보도
-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며 지난 분기 26.7% 성장률에서 가속화된 것
- 현재 애플의 유료 구독자는 7억 명으로 전년 대비 1.5억 명 증가한 수치
- [분기 실적] 814억 달러 +36% YoY (vs 시장컨센 733억 달러 상회) / EPS 1.30달러 (vs 시장컨센 1.01달러 상회) / 매출총이익률 43.3% (vs 시장컨센 41.9% 상회)
- [상세 실적] 아이폰 매출 395.7억 달러 +49.8% YoY (vs 시장컨센 340.1억 달러 상회) / Mac 매출 82.4억 달러 +16% YoY (vs 시장컨센 80.7억 달러) / iPad 매출 73.7억 달러 +12% YoY (vs 시장컨센 71.5억 달러 상회) / 서비스 매출 174.8억 달러 +33% YoY (vs 시장컨센 163.3억 달러 상회)

▶ 마이크로소프트(MSFT.US): 4분기 실적 리뷰, 사상 최대 실적 갱신

-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환경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 성장을 이끌었지만 Xbox 매출은 하락
- Azure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성장 투자자들 기대치보다 저조해 추가 하락
- 마이크로소프트 Surface PC 매출은 공급 문제로 20% 감소
- [분기 실적] 461.5억 달러 +21% YoY (vs 시장컨센 442.4억 달러 상회) / 조정 EPS 2.17 달러 (vs 시장컨센 1.92 달러 상회)
- [상세 실적]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173.8억 달러 +30% YoY (vs 시장컨센 163.3억 달러 상회) / 클라우드 서비스 Azure 매출 +51% YoY / LinkedIn과 Dynamics가 속한 P&BP 매출 146.9억 달러 +25% YoY (vs 시장컨센 139.3억 달러 상회) / 상업용 오피스365 구독 성장률은 15%에서 17%로 가속화 / 퍼스널 컴퓨팅 매출 140.9억 달러 +9% YoY (vs 시장컨센 137.4억 달러 상회)

소비재 / 헬스케어 / 금융

▶ 스타벅스(SBUX.US): 3QFY21 실적 컨센 상회, EPS 가이드스 상향조정

- [분기 실적] 조정 EPS \$1.01 (vs 컨센 \$0.78) / 매출 \$75억 (vs 컨센 \$72.9억)
- [FY21 가이드스] 조정 EPS \$3.20-\$3.25 (중진 \$2.9-\$3.0) / 동일 매장 매출 +20%~21% (중진 +18%~23%)
- [지역별 FY21 가이드스] 미국 동일 매장 매출 +21%~22% (중진 +17%~22%) / 중국 동일 매장 매출 +18%~20% (중진 +27%~32%)
- [동일매장 매출] 글로벌 +73% / 미국 +83% YoY / 미국 외 +41%(중국 +19%)
- 미국에서의 병용료 판매량 급증으로 스타벅스 수익 및 매출 증가
- 무반대로 큰 중국 시장에서는 FY21 동일 매장 증가치 둔화 전망이었으나 EPS 전망치는 상향
- [미국] 19년 대비 동일 매장 매출 +10%, 음료 판매의 3/4 이상이 니트로 콜드브루 등 차가운 음료에서 창출되었으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으로부터 창출

▶ 비자(V.US): 3QFY21 EPS 및 매출 컨센 상회, 연간 가이드스 미제시

- [분기 실적] 조정 EPS \$1.49 (vs 컨센 \$1.35) / 매출 \$61억 (vs 컨센 \$58.6억)
- [부문별 매출] 데이터 처리 +32% / 결제 서비스 +17% / 해외 수수료 +54% / 기타 +31%
- Covid-19 영향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연간 가이드스 미제시
- 전지결제금액 +34% (Credit +36%, Debit +37%)
- 결제처리 건수 +39% / 해외거래(Cross-border) 결제금액 +47% (유럽 내 +53%)

산업재 / 에너지 / 통신

▶ 제너럴일렉트릭(GE.US): 2분기 실적 컨센 상회, FCF 가이드스 상향

- [분기 실적] 조정 EPS \$0.05 (vs 컨센 \$0.03) / 매출 \$183억 (컨센 \$180억)
- [연간 가이드스] 연간 free cash flow 가이드스를 \$35억~50억으로 상향(중진 \$25~45억)
- 레저 여행 수요가 복구했고, 비즈니스 여행 수요도 그리 뒤쳐지지 않는다는 낙관적 전망 제시. 팬데믹에 따른 경기둔화로부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투자유망종목

투자유망종목 Weekly (7/28~8/3)

종목	코드	시총(조)	편입일	1D(%)	누적(%)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2487	3/24	(0.87)	21.42
아마존닷컴	AMZN.US	2111	7/28	(1.98)	(1.98)
비자	V.US	637	4/7	0.27	14.56
페이팔	PYPL.US	408	7/28	(2.06)	(2.06)
캐타피러	CAT.US	133	3/3	(0.54)	(4.49)
에스티 로더	EL.US	138	3/10	(1.06)	17.75
유나이티드렌탈	URL.US	27	7/14	(0.35)	1.60
오메가헬스케어	OHHL.US	10	6/9	0.56	(0.16)
TSMC	TSM.US	680	1/5	(1.82)	4.13
통위	600438.CH	34	7/7	(2.25)	3.62

중국

IT / 플랫폼

▶ SMIC(981.HK): 화웨이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 부각

-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SMIC는 현재 40nm 공정의 화웨이의 OLED 칩 위탁생산을 맡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
- 화웨이에서 자체 개발한 OLED화된 구동층은 이미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 말 공급업체에 인도될 예정
- 화웨이의 파운드리 수주를 받게 되면 SMIC 40/28nm 공정을 적용해 위탁생산하게 됨

▶ 메이판(3690.HK): 정부 플랫폼 규제 리스크 재부각으로 추가 급락

- 전일 발표된 음식배달 라이더 관련 정부 요구 사항과 반독점 관련 플랫폼 규제 리스크 재부각되며 이를 연속 추가 급락세 시현
- 26일, 시장감독총국을 포함한 7개 부처(시장감독총국, 국가방신폰공실, 국가발전개혁위, 공안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중앙중국총공회)에서 공동으로 (인터넷 음식 배달 플랫폼의 책임 실현 및 배달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 배달원의 정당한 권익 보장에 대해 전방위적인 요구 사항을 발표, 규제 당국의 시장 질서에 대한 개선 의지가 투심을 위속시켜 메이판 H주와 ADR주는 10% 이상 급락세 시현.

▶ [플랫폼] 플랫폼 기업 급락 코멘트

- 정부 규제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점점으로 치닫고 있음, 7월 이후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보안, 반독점법 관련 정부 조치들에 이어 지난 주말 사교육 규제안까지 확정되며 관련 기업들의 추가가 이를 연속 급락
- 반독점 규제로 인한 인터넷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훼손을 우려할 필요는 없음, 다만, 올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대형 인터넷 기업이 대대적인 투자를 선언한 것처럼 공격적 인수합병과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외형성장이 제한됨에 따라 다시 투자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마진을 하향 압력이 심화되고, 실적 가시성이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재 / 헬스케어

▶ 항시제약(600276.CH): 당뇨병 치료제 HR17031 임상 허가 획득

-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인슐린 및 GLP-1 고정비율 통합제제 HR17031 주사액 임상 허가 획득 공식
- 이와 동일한 치료제는 노보디스콧의 Xultophy 100/3.6,와 사노피의 Soliqua 100/33 등이 있음
- 두 약물의 글로벌 매출액은 2020년 기준 Xultophy 100/3.6 3.74억 달러, Soliqua 100/33 1.84억 달러 기록
- 항시제약의 HR17031의 누적 연구개발비는 1.1억위안 기록

▶ 온라인헬스케어: 맥쿼리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전방 하향 조정

- 맥쿼리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목표가 전방 하향 조정
- 알리헬스(00241.HK) 목표가 25.8HKD에서 15.4HKD로 하향, 평안헬스케어(1833.HK) 목표가 109HKD로 하향, 징동헬스(6618.HK) 목표가 82.1HKD로 하향 조정

▶ 시노핀(1099.HK): Morgan Stanley에서 시노핀 목표가 34HKD에서 30.6HKD로 하향

- Morgan Stanley에서 시노핀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가 34HKD에서 30.6HKD로 하향
- 제너럴 약물의 진중 구매가 할인폭이 예상보다 높은 점, 약력 대의 판매 매출 성장률이 저조한 점에 기인
- 전일 시노핀 주가는 의약섹터 전반 약세의 영향으로 -6.91% 하락 마감

전기차 / 신에너지

▶ [정책발전] 중국주 최근 주가 강세 관련 내용

- 최근 금공과(2208.HK/002202.CH)등 정책 관련주는 원자재 가격 조정과 올 하반기 건조한 전방 수요 기대되며 강한 상승세를 시현
- 중국 정책발전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정책발전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며 수익성에 대한 압박이 있었으나, 일부 원자재 가격은 이미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정책발전 설치 리사가 기대되며 수요 또한 건조할 것으로 예상
- 향후 5년간 글로벌 해상풍력 신규 설치량 예상치는 70GW로 이 중 신규 설치량 절반 수준이 중국에서 설치될 것으로 전망
-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 해상풍력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며 정부 지원 하에 중국 해상풍력 시장은 건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

추천 ETF

분류	종목코드(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주식형	XLF (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미국 금융주	중장기 인플레이션 경계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
주식형	ESGU (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미국 ESG 우수기업	전세계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 기간은 짧지만 트랙레코드 우수, 장기적 우상향 전망
주식형	XLK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기술주	그리 박스권 등락 가운데 이익률이 높은 기술주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
주식형	QUAL (Shares MSCI USA Quality Factor ETF)	미국 질리티 주식	펀드멘탈에 의한 수익률 차별화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